

교회 회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군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민 편집: 양재웅

우리 삶이 특별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제2차 청지기훈련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는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되며,
무서워 떨던 자가 담대한 승리자로 변한다!
기도는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헛된 줄 알고 버립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제2차 청지기훈련 예배시

특별 기도 (누가복음 6:12)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거룩하심으로 완전하시고 성결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시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히 7:26). 그럼에도 예수님은 늘 기도(눅 11:1)하셨으며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26:41). 모든 위선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자.

1.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에 방해되는 것, 즉 걸치레를 피하기 위하여 상으로 가셨다(막 7:24).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자연 속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마 27:46; 왕상 18:37~40).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실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셨지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셨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깊은 밤이 예수님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마 6:7). 짧은 기도라도 온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셨다(마 14:30). 밤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비고 비인 마음에 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록되는 시간이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는 새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되며, 무서워 떨던 자가 담대한 승리자로 변한다(창 32:26~28).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욕심을 쏟아내는 기도는 아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기도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깨끗한 기도여야 한다(마 6:5~18).

2. 특별 기도는 언제 할 것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을 때 산에서 밤 새도록 기도하셨다(눅 6:6~7,11).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중상모략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 나가는 것이다(마 9:38). 주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

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다(갈 2:20). 예상하지 못하였던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삼하 12:16).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경건한 삶을 원할 때,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할 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골 3:35).

3. 교회의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도 계속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 항상 열려 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영혼이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엡 6:18). 형식과 예식과 전통과 논리를 떠나 믿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자(살전 5:17). 교회 안에 영적인 질병이 들어 올 때, 새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요 15:26; 뱀전 2:9).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시 69:9; 히 5:7~10).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하기를 원한다(요일 3:13~16). 기도는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눅 23:34).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따로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왕상 18:37~39).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자! 아멘.

다음 주일(28일) 찬양예배 시, 2009년 제3차 학습 및 세례식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칼빌로)

YOU FOOL!

(15)Then He said to them,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16)And He told them a parable, saying, "The land of a rich man was very productive. ... (20)"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21)"So is the man who store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Luke 12:15-21)

God's and the world's points of view are contrary to each other. The world looks at wealthy, highly educated, culturally refined, and good-natured people with admiration and respect, but God sees them differently. In today's Bible passage, Jesus clearly explains that everyone, no matter how prosperous and sophisticated, but not rich toward God is an utter fool. It's strange so many people pray to God for success and wisdom, but not for the purpose of bringing Him glory. They want recognition, respect, and money that come from brilliance, hard work, or affluence for their own benefit. Honestly, what's famous to us is foolish to God, what's popular to us is perishing to God, and what's rich to us is ruin to God. God and humankind have absolutely different perspectives. When we look at the rich man that God called a fool we can ascertain that his business success probably had a lot to do with his ambition, discipline, thriftiness, and diligence. The world would appreciate his success by honoring him for his talent, respecting him for his self-motivation and valuing his vision. The problem was that this man's heart was not right with God. Why do so many people make an effort, especially in church, to go out of their way to say hello or make small talks with someone they know is well-to-do rather than someone they know is poor? What can we learn from this foolish man that Jesus mentions?

First, we find out that this fool's prosperity was fleeting. Jesus' story begins, "The land of a rich man was very productive. And he began reasoning to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since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Lk. 12:16-18). We discover that the rich man's farm was abundantly fruitful. His intellectual reasoning doesn't make him out to be a bad businessman. He doesn't want to waste his surplus. His pride in his great harvest made him decide to build new barns. Most likely everyone who knew him, his neighbors, fellow farmers, and church congregation, saw him as successful, but God saw him as a fool. He was missing something important! Jesus warned,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Lk. 12:15). The rich man's treasure was in his income, not God. He had his own desires in mind. He was not rich toward God. Everything he owned was passing. His possessions were all temporary. Instead of storing heavenly treasure, he made the fatal mistake of storing earthly garbage.

Second, we find out that this fool's security was false. Jesus' story continues with the fool telling himself,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Lk. 12:19). He thought his future was

secure. He thought he didn't have any retirement worries. His present condition seemed perfect for him—to relax, go on vacation, and live it up. From a worldly perspective, he was financially prepared to retire in style. He could laugh and smile, knowing that people admired and respected him. He was the example of success for everyone to follow in his neighborhood. 1John 2:15-17 say,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This fool saw his earthly abundance as a sign of comfort. His security was in the world, not God.

Lastly, we find out that a fool's eternity is fearful. Jesus' story ends with this thought,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So is the man who store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Lk. 12:20-21). That night his possessions would profit him nothing. He couldn't take anything with him where he was going. His heirs would be left with everything he owned to fight over. He was not prepared for eternity. He now had to harvest his deeds, not his field. From his field he would go to the fire of hell, just like the rich man in the story of Lazarus (Lk. 16:19-31). This rich fool wouldn't even help a dying beggar. When he died he pleaded in his agony for water, which was denied because of the fixed chasm between heaven and hell. He also pleaded for someone to warn his five brothers, who lived with his father, of his torment. This request was also denied because his family already had the needed resources for salvation. Those who enjoy this earth for themselves now will suffer forever later. "Fools, fools, fools! It is so sad, so very, very sad."

My dear friend, if this was your last day on earth, where will you be spending eternity? Please don't receive the grace of God in vain. Listen to the Word of God, "At the acceptable time I listened to you, and o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Cor. 6:2). God's grace is available now; it is not promised for tomorrow. Confess your pride now! Don't be foolish. If you think you are smart, then know that you are a fool in the eyes of God. Accept Jesus Christ and confess that you don't have anything good in your heart. Don't be proud of yourself. You need Jesus! You need the blood of the Lamb! The jailer asked Paul and Silas,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s 16:30-31). Do you believe? I hope that you do because Jesus is the truth, and He is the only truth that can save your soul. Amen. 🙏

다음 주일 설교

어리석은 자여!

(15)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20)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겠으니
 (21)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15~21)



김성권 목사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서로 상반됩니다. 세상은 고등 교육을 받고, 부유하며, 세련된 문화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다 성공까지 좋은 사람들을 감탄과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아무리 성공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명석한 두뇌와 노력, 자신에게 돌아오는 풍부한 이득을 통해 인정과 존경, 부를 거머쥐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우리에게 인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썩어질 것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값진 것이 하나님께는 파멸당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부자를 살펴보면 그의 사업적인 성공이 그의 큰 야망과 엄격한 훈련, 검소함과 철저한 관리에 따른 결과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재능과 철저한 자기관리에, 비전에 대해 격찬하면서 그의 성공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특히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부유층에게는 일부러 가서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말이라도 붙여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허무하다

먼저,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성공이 덧없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눅 12:16~18). 우리는 부자의 농장이 풍작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 그를 악덕 사업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일여 농산물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창고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곧 그의 이웃들, 동료 농부주인들, 교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중요한 그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이 부자의 보화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수임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만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부요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대신 이 땅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에는 영원한 평안이 없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안도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눅 12:19). 그는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현 상태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휴식을 가고 인생을

즐거기에 완벽해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고상하게 은퇴해도 좋을 만큼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한껏 여유로운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성공의 귀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15~17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께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세상적인 풍부함이 평안을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안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영원한 위험하다

결국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영원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겠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20~21). 그날 밤 그의 재물들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죽은 뒤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상속자들은 한 때 그의 소유였던 모든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삶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발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열매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눅 16:19~31). 어리석은 죽어가는 거지를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후 그는 고통 중에서 물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깊은 구렁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그는 누군가를 자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어 그의 다섯 형제들에게 이 고통 받는 곳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에게는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즐기는 자들은 나중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슬프고, 슬프고, 슬픈 일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처소는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뵈니 네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겠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리석은 바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에게 선행 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행 16:30~31).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6. 17)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전서 10:1-4)



로 이용하려고 한다. 자신만의 행복목록을 삶의 기초로 삼는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기호로 삼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다(로 14:23; 요 16:9). 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호와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 기호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시 18:2). 우리는 오직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사 26:4).

그리스도는 견고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반석이다(시 62:2). 자신이나 세상에 기초한 믿음은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지만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없다(히 13:8).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매번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따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위와 어둠을 밝혀주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뿐이었다. 그들의 기호에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겐로 볼 때 차이가 없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기호가 무엇이나에 따라 그 결말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마 7:24-25).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지만 삶은 정반대의 것을 원하며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는가? 이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자.

그리스도는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의 원동력이다(시 62:7). 그리스도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그리스도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기 보다는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에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도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기초할 때 우리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고전 10:4).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보증하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견조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힘을 준다(골 6:10).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한다. 이토록 놀라운 힘의 원천인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7-38).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성령의 능력이다(요 7:39; 요 4:14).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할 때 능력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땅대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이시다(시 61:2-3).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니 안에 갇추어졌음이라"(골 3:3). 그리스도의 피난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며 이것은 영원하다(마 10: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 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7-39). 그리스도의 반석은 안전하다.

그는 찬양 받으실 반석이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한 사람들은 찬송한다(사 42:11).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 없다면 회개해야 한다. "여호와와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기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라"(출 15:2). 우리의 노래와 세상의 노래와는 분명 다르다(렘 5:18-19).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한 사람들의 찬송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렘 16:25).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찬양하지도 않는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그리스도께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 받으실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반석이어야 한다. 화려한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호가 될 때 땅상은 안전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는 않는다. 진노의 심판이 있을 뿐이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반석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마 21:42; 눅 20:17-18). 그리스도만이 견고한 반석이며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을 삼 신자에게 영원히 공급되는 힘의 원천이다. 그리스도의 반석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거하는 신자의 삶에는 찬양이 넘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하자(마 16:18).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자. "나의 반석, 구주 예수" 아멘.

마가복음 강해 76

마지막 만찬 (14:22-26)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누었던 본문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마 14:22).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며 받으라고 하였고, 이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바울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 11:24).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구절을 통해서 성찬의 중요 메시지를 가르쳐 주었다. 떡을 나누신 예수님은 이어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모두 잔을 마시게 하였다(마 14:23). 잔을 비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14:24).

제자들이 마신 잔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절대로 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마시기 전에 그것이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밝히셨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 잔을 절대로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먼저 잔을 마시게 한 후 그 잔의 의미를 설명하셨던 것이다. 피는 생명을 이룬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였다(출 12:21-23). 그 당시 모세는 그 피의 의미를 설명하며 "언약의 피"(출 24:8)라고 말하였고 이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이다(고전 5:7). 이 속령에 대해서 아시아 선지자는 아주 명백하게 예언하였다(사 53:11-12). 예수님이 흘리신 피

는 새 언약의 피며 은총의 자녀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념해야 한다(고전 11:25).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신 잔은 인류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이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 내가 그들의 약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1-34). 새 언약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마지막 만찬은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 만찬을 기도로 마무리 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 내가 보내신 자라 하시며 나로써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14:25). 이 말씀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마 1:8).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다(마 14:26).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날까지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념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월절을 지킬 때 맑은 성령의 중심비행은 찬양이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이 찬양하라 ...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시 113:1-3).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시 115:18).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 할렐루야"(시 117:1-2). 마지막 만찬은 구원을 찬송하게 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다. 복음은 가장 낮은 데 있다(시 118:1-2,22). 보다 갈보리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격정하는가? 내안에 나를 짓누르는 모든 의식과 형식, 전통과 관례를 버리고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시 118:24-25). 아멘.

* 매우 절묘한 색기 기도(사백 44:6)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망팔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은총을 배수진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단기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2003년 처음 A국에 있을 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준비 과정 또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고생을 도는 것과 같이 며칠간 땅을 밟으면서 언젠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6년이 지나 이번에도 다시 A국 선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 장래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관심 있게 들었고, 그 중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단기선교를 지원하는데 있어 늘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생각하고 동참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A국이 선교국으로 지정되어 언어훈련이 개강되면서 흥분과 기대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개월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비행기 이륙과 함께 사역이 시작되었고,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주께서 지으신 참으로 놀라운 자연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찬송가 79장 찬양으로 팀원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과 성령님께서 이번 사역을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복작지로 향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예약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정오 쯤 사역지에 도착하여 도착예배를 시작으로 정탐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일반 언어를 통해 자기 소개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곳에 우리를 보낸 주님의 계획과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지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준비한 선교언어와 현지어 찬송을 다한 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지 못함이 미안하기까지 하였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공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못다 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 아이들을 위해 천국이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를 내세우며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감사와 기쁨은 한낱의 뜨거운 더위를 식혀주었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는 먼 거리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였는데 좋은 말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한 팀원들 간에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동역함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전도의 사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동철(인수집사, 13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2일(월) ~ 7월 1일(수)	11교구 1팀	김현재
6월 23일(화) ~ 7월 1일(수)	2교구 1팀	한현재
6월 23일(화) ~ 7월 1일(수)	12교구 1팀	심화민
6월 23일(화) ~ 7월 1일(수)	4교구 1팀	임태수
6월 23일(화) ~ 7월 2일(목)	11교구 2팀	정영래
6월 25일(목) ~ 7월 2일(목)	24교구 2팀	왕순화
6월 25일(목) ~ 7월 2일(목)	17교구 2팀	남종호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8일(월) ~ 6월 16일(화)	9교구 1팀	구정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영성심사에서 재심, 언어심사에서 재심을 거쳐 어렵게 출발한 우리 팀.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자'라는 선교구호에 맞추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자'라고 다짐하였건만 중간 도착지의 길은 나의 믿음을 흔들었다. 좁은 길과 심한 커브길, 생명을 위협하며 달리는 버스들, 아찔이 짙은 날씨가 길... '오, 주여 이 길을 가야 하나요?' 믿음 약함을 느끼며 중간 경유지에 서 하룻밤을 앓아 눈을 붙인 뒤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후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이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 잠시 잠깐 우리를 시험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회개가 나왔다.

이곳 사역지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밝은 미소와 이방인에 대한 거리낌 없이 우리를 맞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을 외치며 잘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축복전도, 노방전도, 학교전도를 할 때 전하는 곳마다 예비하신 영혼들이 넘쳐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함을 느꼈다. "주님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랍담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로 10:14~15).

부족하고 아무 쓸데없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이 죄인을 이곳까지 보내시기 주님의 도구로 쓰인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다. 말씀을 듣고 영접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다. 천국에서 그들의 예쁜 노동자를 다시 보기를.

태명자(권사, 16교구)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마음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자.' 마음속으로 구호를 외치며 선교 사역지에 도착하여 10박 11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지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지에는 우상을 섬기는 영혼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비천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부인으로 선교에 임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무더위로 매우 지쳐 있었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지만 해발 1,500미터가 넘는 험준한 산과 길을 마음 졸이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10명의 팀원들은 차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회개하며 사역에 임했습니다. 이곳까지 우리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아무리 육신이 지치고 힘들고 위험해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비천한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추악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부인으로 선교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온갖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비천한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 주신 줄 믿고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주님의 손길에 닿아 썩어 트고 자라나 열매 맺어 기쁘게 열매를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정신(인수집사, 18교구)

그래서 기도한다!

예전의 나의 모습이 무뎠던 신앙인인 바보였다면 지금은 주의 일에 열심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지 모르겠다. 오늘 '복음의 일꾼'이란 주제로 영성훈련을 듣는 중에 또 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주어진 나의 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나의 열심이 천국로 앞서도록 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주의 일이라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과연 나의 교만과 자랑은 없었는지 생각해 본다. 아니라고 해도 순간순간 어찌 불평은 없었겠고, 불만은 없었겠는가! 또한 주께서 쓰시고자 하셨기에 혼란시키고 능력 주셨음을 알면서도 내가 한 일로 착각할 때도 많았으리라. 그래서 기도한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지팡도 나의 교만도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주님은 순종하며 감사할 때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다.

최지숙(11교구, 집사)

회개

수요일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마치고 함께 교회로 돌아온 우리 일행이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강의를 듣기 위해 수요성경공부 반에 들어간 것이 었것게 갑니다. 그런데 벌써 돌아오는 주일이 종강식입니다. 사실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은 가장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여 예레미야서를 통해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으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곧 멸망할 유다 백성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에 잠 못 이루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죄인들을 향한 신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렘 13:17).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심정으로 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는 극심한 고난과 고초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서 회개하며 애통해 하던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미래의 새 언약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수요성경공부 강의 가운데 우리가 금요찬양집회에서 찬양하던 <바벨론>, <주기도> 찬양을 들으며 모두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김동순(집사, 18교구)



예수님 때문에, 나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며 폭신한 이불같이 포근하다. 무섭게 흔내시며 회초리를 들어 가르치실 수도 있건만 성경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또 새로운 한 가지 방법인 '집사의 부부수련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태선임을 가진 나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비고 빈 마음으로 된 모습 그대로 겨우 주일 성수만 힘들게 하던 나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제는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임을 알게 하시기 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 나에게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내가 아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또 막연히 사모하게 하셨던 집사회 부부수련회, 사랑하는 아내와 뒤늦게 기도원에 도착해서 기도회로 수련회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아내와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던 말인가. 그저 감사했다. 다음날 이어지는 아침 경건회, 부흥회, 성경읽기, 친교의 시간 등 시간 시간마다 즐겁고 기대되고 어찌나 기쁘지, 자꾸만 내게 주어진 귀한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말씀과 기도 시간에는 바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게 하셨다. 또한 종 된 자의 영적 부흥을 위해 모임에 힘쓰고 세상과 타협함에서 떠나 회개하며 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를 찬탄하듯 맛보는 시간이었다. 마음과 뜻 모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에 감사했고 또 친교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나의 눈에 '아, 천국에서의 모습이 과연 이렇게구나!' 라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세상의 화려하고 재미난 프로그램이 아닌, 성경과 찬양, 단순한 게임으로 이렇게 재미있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이, 모두 예수님 때문이니 예수님이 어찌 좋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나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맘 정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말씀 깨달음도, 찬양도, 전도도, 선교도, 믿을 지킬 수도, 십자가를 붙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죄인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스러우세요? 천하보다 귀한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김봉화(안집사, 16교구)

무너진 교만의 바벨탑

2009년 집사회 일정 중에 부부연환 수련회가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참작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요찬양집회 후 총원기도원으로 달려가면서 "그냥 앉아 있다 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강예배를 드리면서 홀 흐르듯 가는 나의 옛 자아들이 살아 넘쳐서, 날들은 오지 않는게 '나는 왔노라!' 하는 교만함으로 스스로의 바벨탑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교만의 바벨탑은 곧 무너졌다.

매일 나의 삶은 바쁘고 지쳐 있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느니 예수님의 모습은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은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시 136:1)이 아닌, 세상에 얽여서 표시 나지 않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삶속에서 문화와 뒤떨어져 할리워 하려면 우리를, 아니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하게 하였다.

수련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나를 깨뜨렸다.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고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절교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기도하였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람을 얻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의 실천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제는 세상에서 문화나 교행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할 것이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움을 몰라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영적 무감각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달려 나아가게 하소서."

류태준(안집사, 17교구)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제 믿음으로

내 고향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사골 교회는 언제 보아도 정겹다. 그곳 주일학교 시절이 벌써 반세기 전 일이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수십 리 길을 걸어 우리 동네 교회에 다녔다. 그들은 40년대 후반에 이미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여 이단취급을 받기도 했다. 나는 할머니가 하시던 방언을 따라가신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집안 모임에서 가끔 코믹하게 흉내내곤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예수님을 보러 간다고 해서 엄격결에 할머니를 따라 70리 산길을 걸어 시내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후에 그 영화가 '벤 허'라는 것을 알았다. 중·고교 시절은 마냥 활짝 지나가 버린 것 같으며 대학 때는 기독교 동아리모임으로 나를 바쁘게 보내기도 했다. 직장생활 초년 시절은 교회를 떠난 영적 겨울이었고, 결혼 후에 충현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갈망했지만 사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근년에 나는 두어 가지 말씀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였다. 이는 정말 자주 들던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보다는 늘 나를 우선하는 문제의 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자기 항복과 부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결단이 예수를 따르는 선행 조건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였다. 막상 자기 부인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갈 2:20)라는 바울의 말씀에서 찾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만 완벽한 자기 부인이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씀은 실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요 해법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고 고백했다. 그는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실로 나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경종으로 들렸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진정으로 이생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외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길 소망한다(로 5:1).



채중표
(안수집사, 고등부부장)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

'교인의 종류'를 재미있게 풍자한 글을 읽었다. 우선 '갈투 교인'이 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갈투를 주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인력거 교인'은 심방을 가서 모셔와야만 겨우 나오는 교인이다. '우람선 교인'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갔다 하는 교인이다. '헝사 교인'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만 얼굴 내미는 교인이다. '종이 교인'은 비만 오면 죽 저저서 안 나오는 교인이다. '가시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가시 노릇하는 파괴적 인 교인이다. 풍자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에 씁쓸하다.

나는 어떤 교인인가? 아니 교인, 성도, 신자 등을 따지기 전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계(행 8:24)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마 16:24).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으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교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자(골 6:14).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교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 1:1). 아멘.

수화 발명 ⑥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은 인류를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세상인가 아니면 십자가인가? 결정을 내리기 전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자. 심판주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1. 하늘에



2. 오르사



3. 전능



4. 하신



5. 하나님



6. 우편에



7. 앉아



8. 계시다가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25	박철두리	21	장년3부	고영민(21)	1054	강성욱	23	청년2부	이미월(7)
1026	나성수	15	중동1부	박우현(15)	1055	김계은	6	장년2부	이미월(7)
1027	김태영	10	장년2부	이훈일(10)	1056	정민혜	8	고등부	원민선(8)
1028	박순자	7	장년3부	이재호(8)	1057	박익현	14	고등부	정윤재(15)
1029	임주영	24	소년부	최정순(24)	1058	김민원	15	고등부	김지영(13)
1030	이복현	16	장년1부	지미연(16)	1059	오형식	14	유년부	김정호(23)
1031	오지호	25	외선부	양승복(21)	1060	오사무열	8	중동2부	이진진(8)
1032	수혜	25	외선부	양승복(21)	1061	이기현	25	사람부	유승철(19)
1033	김준봉	15	장년2부		1062	양문환	3	청년2부	전승기(23)
1034	심영삼	18	소망부	이승의(18)	1063	김대우	19	청년1부	
1035	정현미	16	장년2부	김영구(12)	1064	최정현	1	청년2부	
1036	원유정	16	고등부	김영구(12)	1065	김하나	2	청년1부	
1037	오수민	18	중동3부	백예은(14)	1066	구명희	12	청년1부	구옥희(8)
1038	김영애	12	장년2부	채은실(24)	1067	권영애	4	장년2부	김정희(1)
1039	오준철	3	중동2부	오성민(2)	1068	이순자	13	장년3부	이영숙(14)
1040	이진현	6	청년1부	김현철(6)	1069	최세로제이	25	외선부	김정원(21)
1041	박현경	8	고등부	이정애(8)	1070	오지희	21	고등부	김금숙(21)
1042	박계순	12	장년2부		1071	김희숙	25	예배디너	정영미(25)
1043	김진영	1	중동1부	김주은(1)	1072	박민지	5	대학부	이애미(1)
1044	김종호	22	장년3부	박예선(23)	1073	고영희	6	청년2부	유미경(9)
1045	곽희하	8	소년부	곽미진(12)	1074	조장영	2	장년3부	김광희(14)
1046	이숙진	25	사람부		1075	김재원	17	청년1부	이복희(12)
1047	김기범	25	사람부	이정희(7)	1076	김민아	17	청년1부	전혜숙(2)
1048	이건경	13	고등부	강미경(11)	1077	김경혜	2	장년1부	이광현(24)
1049	이준영	17	장년2부	이윤의(1)	1078	정영민	22	청년3부	이광현(24)
1050	장영미	19	청년1부	장성애(22)	1079	이진희	16	청년2부	유정옥(4)
1051	박세호	10	청년2부	이옥자(10)	1080	서지훈	19	청년1부	박성미(3)
1052	이세미	2	청년1부		1081	사르나	25	외선부	이정희(5)
1053	이윤희	23	청년2부						

* 종교개혁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충현교회 55년사 책 수령을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 일 시 : 23일(화) 10:00~15:30 장 소 : 김일리

일 시 : 27일(토) 10:00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

- 2009년도 루빈기 중견장학생 선발**
1. 선발기준
- ① 본 학교 등록고교인으로 2007년 6월 31일 이전 등록자 ② 교회학교에 재적 중인 고·대·대학·신학대학원 학생
- ③ 모든 예매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6월 21일(주일)~7월 5일(주일) 16:30까지
3. 선발시합 : 7월 17일(금) 13:00
4. 문의 및 신청장소 : 교육과 ☎ 562-8200(☎ 472, 473)

24 (수)	25 (목)	26 (금)	27 (토)	28 (주일)
김창성/김동철	김근영/정철석	박준식/정운출	최진철/조현영	안일찬/이향란
미 7:14-20	나 1:1-15	나 2:1-13	나 3:1-7	나 3:8-19

날짜	예 매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6/24	수요 I 수요 II	변함없이(예 6:24) 윤희란 목사 내 삼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요(5:22-59) 이광현 목사	유재진 이재현	전성실 윤 순	나의 생명 되신 주(호산나 찬양대) 우리 주 십자가(실로암 찬양대)
6/26	금요찬양	양계복 목사	최강진		예루살렘 찬양대 / 수화찬양 / 바이올린 김유경
6/28	주일 I	어리석은 자여(눅 12:15-21) 김강성 목사	김성진	김구형	《예배 전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측은 외 배이울린 유희진(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어두운 밤 밝히는 외 / 소로라 이은희(할렘산악 찬양대 율로크스트) 내 귀를 깨워 깨닫는 외 / 테리 데이비슨(한빛교회 클로버팀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외 / 데이비 바루프, 버리톤 전도생(예보 찬양대)
	주일 II	어리석은 자여(눅 12:15-21) 김철규 목사	정민진	박성명	
	주일 III	어리석은 자여(눅 12:15-21) 김갑관 목사	이희석	이상복	
	주일 IV	어리석은 자여(눅 12:15-21) 강 춘 목사	황진성	조종민	
	주일 V	어리석은 자여(눅 12:15-21) 김근영 목사	이광현	박덕양	
	주일연합	크리스찬(행 11:19-26) 김성관 목사	양영철	최윤덕	여교역자 찬양단 / 영이성경학교 / 9교구

기도원진희 아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동지성경공회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세백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간	차 량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일	저녁 11:00	금요일양철로 부 통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7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8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동남아시아) 등 다양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panish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benezer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1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중동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동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동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동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동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장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양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랑부	오전 9:00	복건관 지하1층
예배당	오전 9:00(평일) 오후 1:00(일요일)	제2교육관 1층
탁아부	(주)오전 8:30~오전 8:00 (금)제700~제933	선교관 1층
새가족육양부	오후 12:10	대니얼
국립외국인교과실	오전 11:00	야엘
영유아교육시설	오전 8:30~오전 9:30	제1교육관 7층
초등학교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하철예배교육	주간교육	충현북역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코”

- 3) 3월 29일 모든 성도들이 집회를 마련(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귀기의 깊은 믿음으로 같은 그리스 예수의 종들 11이 되게 하소서.
- 4) 위임묵사의 영육을 강권(강화) 29회까지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귀기를 전하는 복음의 종들(교인) 22로 사하여 주소서.
- 5) 모든 위임된 복수들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전하는 데한 마음과 화(魂) 22로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우시 주옵소서.
- 6)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입국(마) 양성된 천 49회까지 하소서.
- 7) 1-1-1 천도(천 13)와 천령 교회(천령 천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 8) 모든 민족과 영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 기교(영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성소로, 비는 성교사 (벤전 29)가 되게 하소서.
- 9)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인화(교인)하며 모든 성도들(마 23)을 통하여 기묘한 천장회복의 집회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10) 순천의 제자(제자)들, 동산, 봉자들 복음의 도로로 사 용하여 주시고, 현재 주님은 천 양로원에 났 남공심전 건립이 은혜 주시게 하시고 25회까지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섬 · 기 · 는 · 분 · 들

■ 시무장으로

- [illegible]

■ 위임목사 김성관

- | | | | |
|--------|-------|-------|-------|
| 아사혁 | 바니기 | 정호조 | 김정호 |
| 한수규 | 하우진 | 정호조 | 김정호 |
| 7기7월 | 5기7월 | 2기7월 | 1기7월 |
| 황보민 | 유성진 | 강진수 | 정기호 |
| 12기7월 | 5기7월 | 3기7월 | 2기7월 |
| 김민식 | 박정현 | 김진수 | 정기호 |
| 11기7월 | 3기7월 | 3기7월 | 2기7월 |
| 김민식 | 박정현 | 이광철 | 정기호 |
| 7기7월 | 3기7월 | 3기7월 | 2기7월 |
| 정장길 | 박정현 | 이광철 | 정기호 |
| 이광철 | 이광철 | 이광철 | 정기호 |
| 5기7월 | 5기7월 | 5기7월 | 5기7월 |
| 정기호 | 정기호 | 정기호 | 정기호 |
| 2기7월 | 2기7월 | 2기7월 | 2기7월 |
| 임창식 | 윤인숙 | 김진식 | 홍인숙 |
| 영호초등학교 | 3기7월 | 3기7월 | 3기7월 |
| 최석익 | 김정현 | 강정현 | 최석익 |
| 1기7월 | 5기7월 | 5기7월 | 5기7월 |
| 강국식 | 김진수 | 이복춘 | 김진수 |
| 전도현 | 김진수 | 이복춘 | 김진수 |
| 오준도 | 욱지자 | 이복춘 | 김진수 |
| 1기7월 | 5기7월 | 5기7월 | 5기7월 |
| 김종훈 | 김정현 | 김정현 | 김정현 |
| 영호초등학교 | 5기7월 | 5기7월 | 5기7월 |
| 장길주 | 이광철 | 이광철 | 이광철 |
| 2기7월 | 2기7월 | 2기7월 | 2기7월 |
| 이오일 | 서정호 | 서정호 | 서정호 |
| 북기초 | 서정호 | 서정호 | 서정호 |
| 류기만 | 서정호 | 서정호 | 서정호 |
| 14기7월 | 14기7월 | 14기7월 | 14기7월 |

- | | | |
|-------------|--------------|--------------|
| 이화식
신규회원 | 장 훈
17.22 | 이희식
신규회원 |
| 양재호
신규 | 양재호
신규 | 황건철
신규 |
| 양대선
신규 | 양대선
신규 | 유원철
24.00 |
| 박영문
신규 | 박영문
신규 | 박용문
24.00 |
| 김근영
신규 | 김근영
신규 | 김근영
신규 |
| 김정현
신규 | 김정현
신규 | 이희철
신규 |
| 김성현
신규 | 김성현
신규 | 김백만
신규 |
| 홍동환
신규 | 홍동환
신규 | |
| 이우주
신규 | 이우주
신규 | 김갑자
신규 |
| 전은희
신규 | 전은희
신규 | 김경자
신규 |
| 임태주
신규 | 임태주
신규 | 강영미
신규 |
| 황순관
신규 | 황순관
신규 | 황순관
신규 |
| 조현정
신규 | 조현정
신규 | 조현정
신규 |
| 고영환
신규 | 고영환
신규 | 고영환
신규 |
- 회원부 부지도 강경역